

컬러 코디네이션에 따른 한복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The Visual Evaluation of the Image of Korean Dress according to Color Coordination

강경자* · 팽숙경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Kyung-Ja Kang* · Suk-Kyung Paeng

Dept.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three clothing cues(jacket color, skirt color, and tone of Korean dress) on the image of Korean dress wearer using tone-in-tone coloratio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a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s. The stimuli are 16 color pictures manipulated with three clothing cues by drawing. The 7-point scale designed for visual evaluation of female impression formation includes 24 bipolar adjectives. The subjects were 192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in Chinju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As analyzing the image of female figure by the jacket color, skirt color, and tone, three factors including youth·activity, attractiveness, and visibility were identified. Among these factors, youth·activity and attractiveness were proved to be more important. Each dimensional image was affected by color coordination of jacket color, skirt color and tone of Korean dress. Therefore, the image of Korean dress wearer could be varied by color coordination of jacket color, skirt color and tone of Korean dress.

Key Words : Korean dress, Tone-in-Tone Coloration, Image, Visual Evaluation

I. 서론

우리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의복을 포함한 신체적 외모, 태도 등의 외양적 조건들은 이러한 이미지의 구성요소가 된다. 특히 의복은 의복 이미지를 곧 자기 이미지로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복이미지는 의복이 전해주는 전반적인 느낌으로 선, 형태, 색채, 소재 등의 디자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이들 중 색채는 가시적 표현력이 큰 요소로 복식의 미적인 인식에 가장 먼저 지각된다. 그러므로 색채는 의복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복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 전통복인 한복은 다른 디자인 요소들은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색을 이용한 배색으로 이미지 변화

를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디자인 요소들 보다 색채나 이들의 배열인 배색이 한복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색이 갖는 색상, 명도, 채도 등의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배색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시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강혜원, 고애란, 1991: 이현화, 박찬부, 1997, 1998: 이해숙, 김재숙, 1998)은 대부분 색과 다른 변인을 조합하거나 색상을 중심으로 한 배색방법으로 이들이 인상이나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색상의 배색만으로는 색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색의 여러 특징들을 동시에 갖는 톤의 영향도 함께 밝혀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의류산업현장의 색채기획 시 톤이 중시됨을 고려해 본다면 색상과 톤에 의한 배색방법으로 한복의 치마·저고리를 배색하여 착용자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전통한복에서 많이 착용하는 저고리색인 노랑,

* Corresponding author: Kyung-Ja Kang
Tel: (055) 750-5982, Fax: (055) 753-9030
E-mail: kjkang@gsnu.ac.kr

초록을 기준으로 치마색을 각각 유사색과 대비색이 되도록 조합한 후 치마·저고리의 톤을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로 상·하의를 동일하게 하고 상·하의의 색상에 차이를 둔 톤 인 톤 배색이 되도록 하여 이들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 변화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에 따라 한복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의복이미지는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반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어떤 의복을 접했을 때 나타내는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복이미지는 의복을 구성하는 선, 형, 색채, 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때 각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의복 전반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색채는 가시적 표현력이 큰 요소로 의복의 미적 인식과 관련된 연구결과(안향신, 1994) 가장 먼저 지각되는 디자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壁谷久代 등(1980)과 上野青一郎(1980)도 색채가 다른 의복 디자인 요소들보다 의복 이미지 형성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인과의 접촉 시 첫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그가 착용한 의복의 색채라 할 수 있다. 의복에서의 색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둘 이상의 색이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들이 배색될 때 일반적으로 지각자는 각각의 색을 분리시켜 지각하지 않고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하게 되는 행동패턴을 가지게 된다.

은소영 등(2002)은 의복색이 배색연출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고 유사배색은 무난하면서도 매력적인 느낌을 주며 액센트 배색은 대담하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이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슈트의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차미승(1992)은 실루엣과 색채이미지의 관계연구에서 의복색은 성숙성과 현시성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는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최수경, 강경자(2004)는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길이·폭의 변화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빨강, 파랑의 색상에 관계없이 비비드톤의 원피스드레스는 강렬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고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페일톤, 비비드톤 특히 페일톤이 온유성이미지에 효과적이고 톤이

다크일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색상은 의복의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한복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기숙(1990)은 조선복식의 색조화 방법상의 특징은 강렬한 보색대비보다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유사색 대부분이며, 명도가 낮은 색은 주로 치마에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원, 고애란(1991)은 저고리색을 연두색으로 고정했을 때 보색조화(연두/꽃분홍)가 유사색조화(연두/초록)보다 더 현대적으로 지각된다고 하여 한복의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삼호(1990)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의복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선호 간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한복저고리와 치마의 착용색은 순색을 높게 선호하여 전통적인 보색대비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Juddy(1980)는 청년기의 여성들은 유사배색을 선호하고 다음으로 단색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현화, 박찬부(1997,1998)는 한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미있는 영향요인이 색상조화라고 하였다. 유사조화의 의복은 선호·평가 요인에서, 대비조화의 의복은 개성·주의집중성 요인과 젊음 요인의 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치마색상은 개성·주의집중성, 젊음, 친화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쳐서 색조화에서 넓은 면적의 색상이 의복의 전체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한다는 강혜원, 고애란(1991)의 진술을 뒷받침 하였다. 이해숙, 김재숙(1998)은 한복배색의 색조합에서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의 착용자는 현시적이며 우호적인 이미지를 주고, 빨강저고리에 노랑치마, 남색저고리에 빨강치마의 한복착용자는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녹색저고리에 노랑치마의 한복착용자는 가장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여 색의 성격이 일부 색조합에 강하게 지각되어 색조합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명희(1999)는 노인여성의 인상형성과정에서 한복 및 양장차림의 관찰자의 영향과 상황에 따라 지각되는 차이를 연구한 결과 분홍색과 옥색 한복은 능력·활동성, 현대성이 낮게 평가되어 난색의 적절한 배색이 능력있게 지각됨을 의미하였다. 강경자(2001, 2002)의 연구에서는 상·하 다른 색을 동일한 톤으로 조합한 경우 톤에 따라 조화감에서 차이를 보이고, 색상은 상·하 다르게 조합한 경우 조화감에 대한 지각반응에서 개인이나 문화간에 차이를 보여 명도차가 조화감 평가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의복착용자는 색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한복이라는 동일한 형태라도 상하 배색방법에 따라 이미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마·저고리의 톤은 동일하게 하고 치마의 색상과 저고리의 색상이 유사배색이나 대비배색으로 조합되어

상·하 색상차이가 있을 때 즉 툰 인 툰 배색이 될 때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선행연구(강경자, 2001)와 동일하게 치마, 저고리의 전통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이며 배색구성은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은 치마색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 색상은 다르게 하였으며 자수나 문양,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저고리 색상은 한국 고유의 전통배색을 참고로 빨강 치마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배색이 되는 노랑 저고리, 대비배색이 되는 초록 저고리로 정하였다. 노랑 저고리의 유사배색은 빨강치마, 대비배색은 보라치마를, 초록 저고리의 유사배색은 노랑 치마, 대비배색은 빨강치마로 하여 치마 색상은 모두 3가지 색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색상은 순색인 비비드와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툰으로 조작한 후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의 색상에 준하여 최종적으로 색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툰은 <표 1>과 같다.

자극물 제작은 한복 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 (4D-box 6800 Zun system)을 사용하여 한복 착용자의 그림을 scanning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색상을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과 툰을 조작한 후 프린트 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저고리색 2가지(노랑, 초록), 저고리색에 대한 치마색 2가지(노랑저고리의 유사색: 빨강, 대비색: 보

라, 초록저고리의 유사색: 노랑, 대비색: 빨강), 툰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를 조합하여 만든 총 16개(2×2×4)의 자극물이 제작되었다. 이 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자극물의 변인조합 내용은 <표 2>와 같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저고리색(2), 치마색(2), 툰(4)을 독립변인으로 한 3원 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세 독립변인(2×2×4)에 의해 조합된 총 16개의 자극물을 16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각 실험조합별 피험자 수는 12명씩 피험자간 (between subject)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의복과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형용사쌍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30개의 형용사쌍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0쌍의 형용사쌍을 추가하여 총 40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다. 그러나 요인분석결과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4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다. 자극물 속의 착용자 이미지를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형용사쌍을 기준으로 좌측극단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극단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와 가정교육과 여대생 1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3년 9월 중에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저고리색과 치마색, 툰의 변화에 따라 한복 착용자가 주는 이미지의 요인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방법과

<표 2> 자극물의 조작분류

| 저고리 색 | 노랑 | | 초록 | |
|--------|------------|------------|------------|------------|
| | 빨강 (S, 유사) | 보라 (C, 대비) | 노랑 (S, 유사) | 빨강 (C, 대비) |
| 비비드(V) | YSV | YCV | GSV | GCV |
| 라이트(L) | YSL | YCL | GSL | GCL |
| 덜(D) | YSD | YCD | GSD | GCD |
| 다크(K) | YSK | YCK | GSK | GCK |

Y: 노랑, G: 초록, R: 빨강, P: 보라

<표 1> 색상과 툰의 명색값

| 색상 | 빨강 (Red) | 노랑 (Yellow) | 초록 (Green) | 보라 (Purple) |
|------------|----------|-------------|------------|-------------|
| 비비드(vivid) | 5R4/14 | 5Y8.5/14 | 5G5/10 | 5P4/12 |
| 라이트(light) | 5R8/6 | 5Y8.5/6 | 5G8/4 | 5P8/4 |
| 덜(dull) | 5R5/6 | 5Y7/6 | 5G7/6 | 5P5/4 |
| 다크(dark) | 5R2/6 | 5Y3/4 | 5G3/4 | 5P2/4 |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였다. 도출된 이미지요인별로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24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92$ 로 용어들은 내적일관성 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이미지요인들 즉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6, .91, .8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고리색과 치마색, 튜닝화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LSD 최소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저고리색, 치마색, 튜닝화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튜닝된 배색으로 저고리색과 치마색, 튜닝에 변화를 준 16개의 자극물에 대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차원을 밝히

기 위하여 24개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 분석과 Varimax회전법에 의해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아이겐 값이 1.0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3개의 요인으로 묶이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39.1%로 3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밝은-어두운, 경쾌한-중후한, 발랄한-점잖은, 어려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귀여운-성숙한, 가벼운-무거운, 산뜻한-칙칙한, 즐거운-우울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동적인-정적인, 화려한-수수한, 시원한-답답한, 눈에 띄는-무난한이 포함된 13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어 배색으로 인상형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이명희, 2002)의 활동성 요인, 이현화·박찬부(1997)의 연구에서 젊음 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젊음·활동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22.8%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조화된-조화되지 않은, 우아한-천박한, 자연스러운-어색한, 좋아하는-싫어하는, 세련된-촌스러운, 안정된-불안정한, 멋있는-멋없는, 깔

<표 3> 저고리색, 치마색, 튜닝화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공통성 (h ²) |
|----------------|-------------|-------------|-------------|-----------------------|
| 밝은-어두운 | <u>.917</u> | .106 | -.086 | .860 |
| 경쾌한-중후한 | <u>.904</u> | .067 | -.040 | .823 |
| 발랄한-점잖은 | <u>.900</u> | .055 | -.005 | .813 |
| 어려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 <u>.897</u> | .130 | -.056 | .825 |
| 귀여운-성숙한 | <u>.844</u> | .112 | -.114 | .738 |
| 가벼운-무거운 | <u>.842</u> | -.079 | -.142 | .735 |
| 산뜻한-칙칙한 | <u>.839</u> | .306 | -.122 | .813 |
| 즐거운-우울한 | <u>.796</u> | .323 | -.004 | .738 |
| 활동적인-비활동적인 | <u>.766</u> | -.088 | .119 | .608 |
| 동적인-정적인 | <u>.759</u> | -.042 | .113 | .591 |
| 화려한-수수한 | <u>.744</u> | .118 | .241 | .625 |
| 시원한-답답한 | <u>.717</u> | .222 | -.004 | .564 |
| 눈에 띄는-무난한 | <u>.716</u> | -.038 | .297 | .603 |
| 조화된-조화되지 않은 | .138 | <u>.813</u> | -.093 | .688 |
| 우아한-천박한 | -.150 | <u>.804</u> | .007 | .669 |
| 자연스러운-어색한 | .150 | <u>.803</u> | -.154 | .692 |
| 좋아하는-싫어하는 | .309 | <u>.761</u> | -.088 | .682 |
| 세련된-촌스러운 | .326 | <u>.753</u> | .085 | .681 |
| 안정된-불안정한 | -.209 | <u>.733</u> | -.147 | .602 |
| 멋있는-멋없는 | .328 | <u>.731</u> | .130 | .659 |
|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 .198 | <u>.712</u> | -.068 | .551 |
|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 -.354 | <u>.657</u> | .020 | .558 |
| 강한-약한 | -.088 | -.048 | <u>.906</u> | .831 |
| 강렬한-은은한 | .108 | -.150 | <u>.885</u> | .817 |
| 고유치 | 9.376 | 5.460 | 1.927 | 16.763 |
| 전체 변량의 % | 39.1 | 22.8 | 8.0 | 69.9 |
| 공통 변량의 % | 55.9 | 32.6 | 11.5 | 100.0 |

끔한-깔끔하지 않은, 지적인-지적이지 않은의 형용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한복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연구한 이해숙·김재숙(1998)의 매력·평가성 요인과 의복스타일과 색상, 톤조합을 단서로 연구한 김윤경·강경자(2003)의 매력성 요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강한-약한, 강렬한-은은한의 형용사들로 구성되어 전체변량에 대해 8.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의복의 색상과 톤을 연구한 최수경·강경자(2003)의 주의집중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나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 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젊음·활동성요인에서는 밝고 발달하고 동적이고 경쾌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매력성 요인에서는 세련되고 멋있고 우아하고 지적인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강렬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3개의 인상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9.9%로 나타났고, 이중 젊음·활동성, 매력성 요인이 86%를 차지하여 이 두 요인이 톤인톤 배색에 대한 한복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2. 저고리색, 치마색, 톤 변화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이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 변화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톤별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

한복의 톤별 치마·저고리의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4~7>에 나타내었다.

톤이 비비드일 경우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표 4>에서 보면 젊음·활동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노랑저고리에 초록치마, 초록저고리에 노랑치마로 조합된 유사배색이 대비배색보다 더욱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초록저고리에 빨강치마를 배색한 경우에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매력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현시성 요인에서는 모든 배색이 강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화려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주는 비비드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톤이 라이트일 경우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표 5>에서 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모든 배색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유사배색이 더욱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어 비비드 톤일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노랑저고리에 보라치마, 초록저고리에 빨강치마의 배색이 긍정적으로, 노랑저고리에 초록치마, 초록저고리에 노랑치마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톤이 라이트일 경우는 치마·저고리가 대비되는 색으로 배색되었을 때 보다 매력성 이미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초록저고리에 노랑치마가 배색되는 경우만 현시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어

<표 4> 비비드톤일 경우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

| 요인 | 저고리 | 노랑 | | 초록 | | F값 |
|--------|-----|--------------------|-------------------|-------------------|------------------|---------------------|
| | 치마 | 초록(유사) | 보라(대비) | 노랑(유사) | 빨강(대비) | |
| 젊음·활동성 | | 1.00 ^a | .05 ^b | 1.08 ^a | .38 ^b | 6.033 ^{**} |
| 매력성 | | -.13 ^{ab} | -.24 ^b | -.45 ^b | .51 ^a | 3.157 [*] |
| 현시성 | | .21 | .21 | .34 | .31 | .076 |

* : p < .05 ** : p < .01 수치 : 평균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5> 라이트톤 일 경우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

| 요인 | 저고리 | 노랑 | | 초록 | | F값 |
|--------|-----|-------------------|--------------------|-------------------|-------------------|---------------------|
| | 치마 | 초록(유사) | 보라(대비) | 노랑(유사) | 빨강(대비) | |
| 젊음·활동성 | | .90 ^{ab} | .78 ^b | 1.21 ^a | .59 ^b | 3.126 [*] |
| 매력성 | | -.18 ^b | .41 ^{ab} | -.60 ^c | .75 ^a | 4.204 [*] |
| 현시성 | | -.45 ^b | -1.05 ^b | .96 ^a | -.79 ^b | 8.283 ^{**} |

* : p < .05 ** : p < .01 수치 : 평균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비비드 톤일 경우와 차이를 보였다.

톤이 덜일 경우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표 6>에서 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복의 톤이 덜일 경우는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초록 저고리에 빨강 치마로 배색된 경우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중후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반면 현시성 요인에서는 초록저고리에 노랑치마로 배색된 경우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강하고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톤이 다크일 경우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표 7>에서 보면 덜톤 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한복의 톤이 다크일 경우도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매력성 요인에서는 초록 저고리에 빨강치마로 배색된 경우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현시성 요인에서는 초록 저고리에 노랑치마의 배색만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반면 젊은·활동성 요인에서는 모든 배색이 부정적

으로 평가되어 치마·저고리의 톤이 다크 일 경우 배색유형에 관계없이 중후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톤인톤 배색에 대한 한복착용자의 톤별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명도가 높은 밝은 톤 즉 톤이 라이트와 비비드일 경우 배색유형별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도가 낮은 톤인 덜과 다크일 경우는 배색유형별 이미지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복의 톤이 밝은 톤일 경우는 상하 배색유형이 한복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한복이 어두운 톤일 경우는 배색유형이 한복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배색유형별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치마·저고리의 배색유형별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8~11>에 나타내었다.

노랑저고리에 초록치마(유사배색)일 경우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8>에서 보면 젊은·활동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치마·저고리가 다크톤 일 경우만 부정적으로 평가되

<표 6> 덜톤 일 경우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

| 요인 | 저고리 | 노랑 | | 초록 | | F값 |
|--------|-----|--------|--------|--------|--------|-------|
| | 치마 | 초록(유사) | 보라(대비) | 노랑(유사) | 빨강(대비) | |
| 젊음·활동성 | | .63 | .26 | .22 | -.09 | 2.385 |
| 매력성 | | .10 | .31 | .43 | .03 | .345 |
| 현시성 | | -.13 | -.10 | .02 | -.60 | .863 |

<표 7> 다크톤 일 경우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

| 요인 | 저고리 | 노랑 | | 초록 | | F값 |
|--------|-----|--------|--------|--------|--------|-------|
| | 치마 | 초록(유사) | 보라(대비) | 노랑(유사) | 빨강(대비) | |
| 젊음·활동성 | | -1.18 | -1.37 | -1.18 | -1.23 | .377 |
| 매력성 | | .03 | .58 | .25 | -.35 | 2.048 |
| 현시성 | | .16 | .70 | -.21 | .29 | 2.402 |

<표 8> 노랑저고리에 초록치마(유사배색)일 경우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 요인 | 톤 | 비비드 | 라이트 | 덜 | 다크 | F값 |
|-----|--------|------|-------------------|-------------------|------------------|-------|
| | 젊음·활동성 | | 1.00 ^a | .90 ^{ab} | .63 ^b | |
| 매력성 | | -.13 | -.18 | .10 | .03 | .260 |
| 현시성 | | .21 | -.45 | -.13 | .16 | 1.700 |

** : p < .01 수치 : 평균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어 중후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는 어둡고 무거우며 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다크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톤 특히 비비드톤 일 경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매우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현시성 요인에서는 치마·저고리가 비비드와 다크 톤일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나 라이트와 덜 특히 라이트 톤일 경우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노랑저고리에 보라치마(대비배색)일 경우 톤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9>에서 보면 젊음·활동성 요인과 현시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다크 톤일 경우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중후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나머지 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매우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어 노랑저고리에 초록치마(유사배색)인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저고리가 노랑인 경우 배색유형에 상관없이 한복의 톤이 명도가 낮은 어두운 톤일 경우 젊음·활동성 이미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치마·저고리가 비비드와 다크 톤일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나 라이트와 덜 특히 라이트 톤일 경우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노랑저고리에 초록치마(유사배색)인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초록 저고리에 노랑치마(유사배색)일 경우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0>에서 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록저고리와 노랑치마로 배색된 경우

각 요인별 톤 변화에 따라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치마·저고리가 다크톤인 경우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중후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나머지 톤 특히 비비드와 라이트 톤 일 경우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아주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톤이 덜과 다크일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비비드와 라이트일 경우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초록저고리에 노랑치마를 조합할 경우 한복의 톤이 비비드나 라이트일 때 보다 매력성 이미지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다크 톤일 경우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나머지 톤 특히 라이트 톤일 경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를 동일한 배색이나 상하의 조합이 바뀐 노랑저고리·초록치마와 비교해 보면 젊음·활동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에서는 상하 어디에 조합되느냐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현시성 요인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노랑저고리·초록치마인 경우는 톤이 라이트와 덜일 때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나 상하 조합이 바뀐 초록저고리·노랑치마일 경우는 다크톤일 때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노랑과 초록의 동일한 배색이라도 상하 어디에 조합되느냐에 따라 현시성 이미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대비배색)일 경우 톤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1>에서 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록저고리와 빨강 치마로 배색된 경우 각 요인별 톤 변화에 따라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비비드와 라이트 톤일 경

<표 9> 노랑저고리에 보라치마(대비배색)일 경우 톤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 요인 \ 톤 | 비비드 | 라이트 | 덜 | 다크 | F값 |
|--------|------------------|--------------------|-------------------|--------------------|----------|
| 젊음·활동성 | .05 ^c | .78 ^a | .26 ^{ac} | -1.37 ^d | 24.889** |
| 매력성 | -.24 | .41 | .31 | .58 | 1.484 |
| 현시성 | .21 ^a | -1.05 ^b | -.10 ^a | .70 ^a | 6.123** |

** : p < .01 수치 : 평균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10> 초록저고리에 노랑치마(유사배색)일 경우 톤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 요인 \ 톤 | 비비드 | 라이트 | 덜 | 다크 | F값 |
|--------|--------------------|-------------------|------------------|--------------------|----------|
| 젊음·활동성 | 1.08 ^a | 1.21 ^a | .22 ^b | -1.18 ^c | 37.342** |
| 매력성 | -.45 ^{bc} | -.60 ^c | .43 ^a | .25 ^{ab} | 2.891* |
| 현시성 | .34 ^{ab} | .96 ^a | .02 ^b | -.21 ^b | 3.576* |

* : p < .05 ** : p < .01 수치 : 평균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표 11> 초록저고리에 빨강치마(대비배색)일 경우 톤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 요인 \ 톤 | 비비드 | 라이트 | 덜 | 다크 | F값 |
|--------|-------------------|-------------------|-------------------|--------------------|----------|
| 젊음·활동성 | .38 ^{bc} | .59 ^{ab} | -.09 ^c | -1.23 ^d | 22.667** |
| 매력성 | .51 ^a | .75 ^a | .03 ^{ab} | -.35 ^b | 3.418* |
| 현시성 | .31 ^a | -.79 ^c | -.60 ^c | .29 ^{ab} | 4.656** |

* : $p < .05$ ** : $p < .01$ 수치 : 평균 a,b,c : LSD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나 덜과 다크 톤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중후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는 노랑저고리일 경우와 유사한 결과로 저고리색과 배색유형에 상관없이 한복의 톤이 명도가 낮은 어두운 톤일 경우 젊음·활동성 이미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둡고 무거우며 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다크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다크 톤일 경우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매력없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톤 특히 라이트와 비비드 톤일 경우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아주 매력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초록저고리에 노랑치마(유사배색)인 경우와 대체로 상반된 결과로 동일한 초록 저고리이나 배색되는 치마의 색이 저고리와 유사배색이나 대비배색이나에 따라 톤별 매력성 이미지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비비드와 다크 톤일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라이트와 덜 톤일 경우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는데 이 역시 초록저고리와 노랑치마(유사배색)인 경우와 대체로 상반된 결과로 동일한 초록 저고리이나 배색되는 치마 색상이 저고리와 유사배색이나 대비배색이나에 따라 톤별 현시성 이미지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한복착용자의 배색유형별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각 요인별 톤변화에 따라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음·활동성 요인의 경우 배색유형이나 저고리색에 상관없이 톤 변화에 따라 비교적 일관성있는 경향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한복의 톤이 명도가 높은 밝은 톤일 경우는 배색유형에 상관없이 젊음·활동성 요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나 명도가 낮은 어두운 톤일 경우는 부정적인 효과를 주어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배색유형보다 톤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톤인톤 배색으로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의 변화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이미지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의 변화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젊음·활동성 요인, 매력성 요인, 현시성 요인의 3개 차원으로 도출되었고 이들 중 젊음·활동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의 변화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톤별로 보면 4가지 톤 중 비비드와 라이트 톤일 경우 치마·저고리의 배색유형에 따른 젊음·활동성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한복의 톤이 밝은 톤일 경우 배색유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각 톤에서 치마·저고리가 유사배색일 경우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유사배색이 젊음·활동성 이미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색유형별로 보면 각각의 유사, 대비배색 모두에서 톤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명도가 높은 라이트 톤이나 비비드톤의 경우 매우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 명도가 낮은 다크 톤일 경우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명도가 높은 밝은 톤이 젊음·활동성 이미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복의 톤이 명도가 높은 밝은 톤이고 치마·저고리의 배색이 유사배색일 경우 젊음·활동성 이미지에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매력성 요인에서는 톤별로 보면 4가지 톤 중 비비드와 라이트 톤일 경우 치마·저고리의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한복의 톤이 밝은 톤일 경우 배색유형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이트 톤의 경우 치마·저고리의 배색이 대비배색일 경우는 매력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나 유사배색일

경우는 매력없는 이미지로 지각되어 배색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덜 톤의 경우는 배색유형에 상관없이 매력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또한, 배색유형별로 보면 각각의 유사, 대비배색 중 저고리가 초록일 경우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록 저고리의 경우 덜과 다크 톤에서는 유사배색이 매력적인 이미지에 보다 효과적이나 비비드와 라이트 톤에서는 대비배색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톤과 배색유형에 따라 매력성 이미지는 다르게 평가되었다.

• 현시성 요인에서는 톤별로 보면 4가지 톤 중 라이트 톤일 경우 치마·저고리의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한복의 톤이 명도가 높은 밝은 톤일 경우 배색유형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라이트 톤의 경우 초록저고리에 노랑치마로 조합된 유사배색만이 현시적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비비드 톤일 경우는 배색유형에 상관없이 현시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화려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주는 비비드 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배색유형별로 보면 각각의 유사, 대비배색 중 대비배색일 경우 톤 변화에 따른 현시성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저고리 색상에 상관없이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톤이 비비드와 다크일 경우는 강하고 강렬한 이미지로, 라이트와 덜 톤인 경우는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비비드와 다크 톤이 현시성 이미지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여러 차원의 이미지 중 특히 젊음·활동성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차원 모두 치마·저고리가 라이트 톤일 경우 배색유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한복의 톤이 밝은 톤일수록 배색유형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고리가 노랑일 때보다 초록일 경우 각 차원에서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치마의 배색이 유사배색이나 대비배색이나 즉 배색유형에 따라서도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고리가 노랑일 경우는 초록 일 경우에 비해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두 배색 유형에서 톤별로 유사한 경향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동일한 톤과 배색유형내에서도 저고리 색에 따라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 한복을 색상 배색만이 아닌 톤을 관련시켜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자료는 의류산업체의 색채기획 시 한복은 물론 의복색의 배색에 관한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선 그림 자극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접 한복을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의 차이는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한복의 저고리색과 치마색을 톤 인 톤 배색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의복변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색상뿐 아니라 재질, 문양, 상황 그리고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색상이나 배색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평가자도 여대생으로 한정되었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복, 톤인톤 배색, 이미지

참 고 문 헌

-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I) -톤인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II) -톤온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443-453.
- 강경자, 정수진 (2005). 치마·저고리의 톤온톤 배색에 대한 이미지 지각.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금기숙 (1990). 조선복식미의 연구. 복식, 14, 167-184.
- 김영인, 조민정 (2000). 국내 패션의류업계의 활용 색채전달 도구 개발을 위한 색채연구. 복식, 50(4), 53-61.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안향신 (1994). 현대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색채경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5호), 715-726.
- 이명희 (1999).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43), 187-202.
- 이명희 (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호), 503-514.
-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현, 조금호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호), 747-764.
-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Dress 및 Pants, Blouse의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호), 984-994.
- 이현화, 박찬부 (1997).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 -의복 단서를 중심으로-. 복식(32), 313-336.
- 이현화, 박찬부 (1998).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I) -지각자 변인을 중심으로-. 복식(37), 119-132.
- 이혜숙 (1999). 복식무늬가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무늬 종류, 형태, 배열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7호),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 ·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 -여자 한복의 상 · 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호), 1052-1059.
- 정삼호 (1990).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 · 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학회지 11(4호).
- 최수경, 강경자 (2004). 색상과 톤, 스커트 폭 · 길이에 따른 원피스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평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4호), 447-454.
- 한국공업진흥청 (1991). 실용한국표준색표집. 서울: KBS 한국색채연구소.
- 壁谷久代, 加藤雪枝, 槍山籐子 (1980). 被服に對する 色彩と圓形の 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卷 8 戸, 35-42.
- 石塚純子, 加藤雪枝, 槍山籐子 (1987).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 服裝イメージ. 日本家庭學會志, 38卷 4戸, 321-332.
- 上野清一郎 (1980). 衣服の嗜好に關る 統系的 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卷 7戸, 42-48.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258-259.
- Gibbin, K. and Schneider, A. (1980). ,Meaning of Garment :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Outfit and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 Vol. 51, 287-291.
- Juddy W, Joyce A. and Margaret R. (1980). Clothing Color Preference of Adolescent Fema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9.
- Winakor, G. and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40-48.

(2007. 7. 5 접수; 2007. 9. 20 채택)